

국가별 양향

미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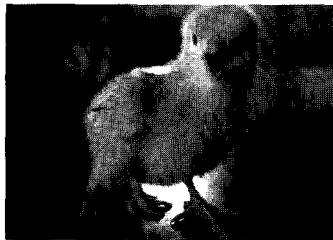
2004년도 닭고기 수출량 3.1% 감소, 금년 5.4% 증가예상

미국의 2004년도 닭고기 수출은 같은 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과 2004년 전반기 육계가격 상승으로 전반기는 수출이 대폭 하락하였으나 8월 이후 전년의 수준을 뛰어넘는 회복세로 2004년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에 비해 3.1% 감소한 216만2천톤을 보였다. 수출국별로 살펴보면 러시아가 전년에 비해 3.1%증가한 68만2천톤으로 전체 31%를 차지했으며, 멕시코(19만5천톤)가 다음을 차지했다. 루마니아(6만7천톤)와 리투아니아(6만5천톤)는 전년에 비해 각각 57.5%, 446.3%로 대폭 증가한 나라가 되었다. 반면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홍콩(11만9천톤), 일본(3만1천톤), 중국(1만6천톤)은 각각 56.0%, 33.2%, 87.4%로 대폭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물량은 감소했지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체 수출총액은 전년에 비해 16% 증가한 17억3천3백90만달러(약 1조7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농무성에 따르면 2005년에는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과 수입 정지국들의 수입해제 등의 수출정책을 떠나감으로써 지난해 보다 5.4% 증가한 228만톤의 닭고기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USDA)

중 국

다리 3개달린 병아리 등장



지난달 6일 중국 위쑤시의 한 농가에서 머리는 하나, 몸은 두개인 돼지가 태어났는데 이어 이번엔 다리가 3개인 병아리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중국의 한 노부부의 집에서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 다리가 1개가 더 달린 병아리가 태어났다. 특이한 점은 기형적으로 돌출된 이 다리의 발가락 개수 또한 비정상적으로 2개뿐이라고 밝혔다. 노부부는 인터뷰에서 “기형다리인 세번째 다리는 땅에 닿지 않은 채 항상 공중에 떠있다”며, “그러나 이 병아리는 다리만 이상할 뿐 잘 달리

고 잘 먹는 등 모든 습성은 여느 병아리와 다른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SP)

인도

아시아에서 최대의 축산국 부상(?)

인도가 조만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료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아시아 농업 리서치센터의 Kevin Hall 이사가 아시아 풀츄리지를 통해 발표하였다. Kevin Hall 이사는 인도가 축산분야에 사료산업을 등지고 가장 강력한 축산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인도는 10억 인구를 넘으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올라서면서 산업발전에 큰 잠재력을 안고 있으며, 현재 중진국으로 선진국 도약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발전 가능성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양계산물 수출도 상당수 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인도는 지난해 1년 동안 2천만톤의 축산사료를 생산하면서 축산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AP)

프랑스

SPACE 2005 준비 한창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프랑스 국제 축산박람회(SPAC 2005)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다.

2004년도 참가 업체수는 총 1,319업체(380개 외국 업체를 포함)가 출품하였으며, 참가업체의 90%가 박람회 기간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다고 설문결과 밝혔다. 2004년도의 방문객 수는 총 110,650명으로 프랑스인이 101,675명으로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외국 관람객들로 나타났다. 이중 55%가 생산

자들이었으며, 41%가 회사 중역, 기계기술자, 학생들이었고 나머지가 일반인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중에서는 양계인들이 11,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공식 집계되었다.

박람회 홍보담당 사비어 카디오 이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기위해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한양계협회에서도 박람회 참관단을 오는 8월 중순까지 모집하고 있다.(SPACE)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새로 발견, 긴급 방역 착수

태국 축산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새로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간 네이션지가 지난날 11일 보도했다.

따라서 지난달 초 “HPAI 완전퇴치”를 선언, 하반기 중 가금류 수출을 촉진시키려던 태국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네이션은 축산청이 수판 부리주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된 가금류를 발견했으며 다른 6개주에서도 최근 발생한 가금류 폐사가 조류독감 때문인 지를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가금류 45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반경 10km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청에서는 새로 발생한 HPAI 감염 지역의 범위가 넓지 않아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태국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HPAI의 발생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으며, 금명간 조류독감 안전지대를 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이제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됐음을 축산청 관계자가 밝혔다.(YTN).